

[수능] 15분 모의고사 3회 정답 및 해설

(09수능)

문법

1. ②

1. 어휘·어법 (인칭 대명사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그쪽'은 아버지의 책을 부탁받는 당사자이다. '㉡당신' 역시 같은 대상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내'는 '㉡나'와 같은 1인칭 대명사이다. '㉠내'는 '가'라는 주격 조사 앞에 쓰이고, '㉡나'는 은/는 앞에 쓰인다. '내'가 '나의'의 줄임말로 쓰이는 경우는 '내 물건'과 같은 사례에서이다. ③ '㉢우리'는 바로 아버지의 책을 부탁하고 있는 '나'를 포함한 '나의 형제자매들'을 가리킨다. 그렇기에 '㉡나'를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그쪽'은 내가 부탁하고 있는 당사자이기에 우리에게 포함되지 않는다.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할 때 대명사를 쓰는 것은 맞다. 하지만 반드시 대명사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대상이 혼동되지 않고 분명할 때만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아버지'를 '당신'이란 대명사로 바꾸어 쓸 수도 있지만, 현재의 쓰임이 어색한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바꾸어 쓸 필요는 없다. ⑤ '㉢당신'을 '자기'로 바꾼다면 뒤에 이어지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현재의 '당신'이 높임법에 맞는 것이다.

독서

2. ① 3. ① 4. ②

[2-4] 과학,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와 그 의미'

지문해설 : 공룡 발자국 화석이 공룡들의 특성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공룡 발자국의 형태, 길이, 폭, 보폭 거리 등을 측정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공룡의 종류, 크기, 보행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형태를 토대로 발자국의 주인이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 중에 어떤 것에 속하는 공룡인지 짐작할 수 있으며, 발자국의 길이를 통해 공룡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보폭 거리를 통해서 발자국의 주인이 어떻게 보행하는 공룡이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주제]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와 그 의미

2.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공룡 발자국 화석은 공룡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발자국의 형태로부터 종류를, 발자국의 길이로부터 크기를, 보폭 거리로부터 보행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룡 발자국 화석을 토대로 공룡의 특성이나 당대의 기후, 환경 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공룡 발자국에 관해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

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중생대 백악기의 기후 환경, 공룡의 분포, 서식지 특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공룡과 환경의 연관성은 글의 내용과 상관성이 적은 부제이다. ④ 공룡 발자국 형태를 통해 발자국 주인이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 중에 어떤 것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둘째 문단에 나와 있을 뿐이다. 글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 ⑤ 공룡 골격 화석이 아니라 발자국 화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B는 타원형이나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로부터 B가 초식 동물인 용각류에 속하는 공룡의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A를 보면 앞쪽에 세 개의 발가락이 있으며 뒤꿈치는 뾰족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각류의 발자국 형태이다. 수각류는 육식 공룡이다. 따라서 A와 C의 공룡이 초식 공룡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림 자료 왼쪽에 건열이 있다는 사실에서 추정할 수 있다. ③ <보기> 자료에서 동일한 지층에서 공룡 발자국과 함께 새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하고 있다. ④ 4족 보행 공룡의 경우에 뒷발자국의 길이를 기준으로 '지면으로부터 골반까지의 높이(h)'를 구한다. 뒷발자국 길이가 B는 평균 30cm이고, C는 평균 36cm이므로 B는 h값이 120이고 C는 144이다. ⑤ B에는 모양이 서로 다른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이 함께 있으므로 B의 주인은 4족 보행 공룡이다. 그러나 D는 규칙적인 2족 보행렬을 보이고 있으므로 발자국 주인이 2족 보행 공룡이다.

4.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상대적 보폭 거리는 [SL/h]이다. A와 D는 발자국 길이가 같으므로 h 값도 100으로 동일하다. 반면에 A의 보폭 거리(SL)는 230cm이고 D의 보폭 거리는 150cm이므로 A와 D의 상대적 보폭 거리는 각각 2.3과 1.5이다. A는 2.0 이상 2.9 이하에 해당하므로 보행 상태가 빠른 걸음 상태였을 것이고, B는 2.0 미만이므로 보통 걸음 상태였을 것이다. [답] ②

문 학

5. ① 6. ③ 7. ② 8. ②

9. ④ 10. ④

[28-33] 현대시, 고전시가 복합

(가) 한용운, '님의 침묵'

작품해설 : 이 시는 임이 떠나 버린 슬픔을 누군가에게 호소하는 듯한, 또는 혼자서 독백을 하는 듯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임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경어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내용을 더욱 호소력 있게 전달한다. 이 시는 임이 떠난 것을 자각하면서 시작된다. 1~4행에서 임과의 이별은 화자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5~6행에서 그 슬픔이 드러난다. 하지만 7~8행에서 슬픔이 희망으로 역전된다. 그리고 마지막 9~10행에서는 슬픔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님의 침묵'에 대한 화자의 태도이다. 화자는 임이 떠나가 버렸고 현재 침묵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 속에는 임이 생생히 살아 있기 때문에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윤희 사상이라는 불교적 사유에 바탕을 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조국 상실의 시대적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주제] 이별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

(나) 김광규, '나뭇잎 하나'

작품해설 : 이 시는 겨울이 되어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를 보면서 발견한 소멸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이 시에서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1~2연에서 언젠가는 소멸하고 마는 자연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제시한 후, 3연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에 주목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4연에서 저마다 생성되었다가 끝내 소멸해 버리고 마는 나뭇잎을 보면서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함께 자신도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안타까움

(다) 작자미상, '춘면곡(春眠曲)'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남녀 간에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즉 상사(相思)의 정(情)을 노래한 평민가사이다. 한 서생(書生)이 봄날 야유원(野遊園)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 춘흥(春興)을 나는 후 이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별로 인한 한(恨)과 원망의 감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겨우 잠이 들어 꿈에나마 임과 재회하여 즐거웠지만, 꿈에서 깨자 다시 임에 대한 그리움에 빠져 이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별한 여인의 심정을 다룬 다른 시

가들과 달리 남자가 겪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주제] 임과 이별한 괴로움을 잊으려 애쓰는 한 남자의 심정, 임에 대한 상사(相思)의 정(情)

5. 비판적 사고(작품들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전반부에서 화자는 '굳고 빛나던 옛 맹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등 과거에 임과 함께 했던 추억을 환기하며 임과의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신록이 우거졌을 때', '낙엽이 지던 때' 등 과거에 미처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환기하며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임과 만나 사랑하던 때를 떠올리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다)의 화자는 모두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는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지 않았고, (다)는 자연의 변화가 표현되긴 했지만 그것이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가)~(다)에는 시적 대상을 예찬하는 작품이 없다. ④ (가), (다)에는 관조적인 자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는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볼 수 없다.

6. 추론적 사고(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은 슬픔이 희망으로 역전되는 부분이다.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라는 표현에는 임과 이별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반면에 ㉡은 마지막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화자가 문득 인식하는 순간을 묘사한 것으로서 화자의 인식만 드러날 뿐, 화자의 의지는 투영되어 있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 ㉡ 모두 시상이 확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 ㉡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은근히 드러나고 있다. ④ ㉠은 역동적인 느낌이 희박하고, 오히려 ㉠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아니고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은 사실과 관념이 뒤섞인 표현이다.

7. 비판적 사고(쉬어 읽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의 '차디찬 티끌'은 임이 떠난 충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임과의 인연이 허무하게 깨진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가)의 화자가 이별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임이 떠났다고 해도 임과의 인연이 깨진 것은 아니다. (나)의 '새벽 서리'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자연물이므로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첫 번째 '아아'는 임이 떠난 것(부

정적 상황)에 대한 비판의 심정을 담고 있으며, (나)의 두 번째 ‘어화’도 임이 곁에 없는 상황(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판의 심정을 담고 있다.

8. 비판적 사고(다른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보면 한용운의 「반비레」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이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라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고, 「나의 노래」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이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에서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을 만나 깊이 교감(소통)한다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시상의 흐름으로 볼 때, 화자는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의지적으로 극복해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님에게 들리는’ 것이 초점이므로, ‘산과 들을 지나서’라는 표현만 보고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임이 떠난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에서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노래가 아니라 화자의 노래이다.

9. 비판적 사고(감상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시는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는 존재의 고뇌를 노래한 시가 아니다. 따라서 4연에서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한 것은, 생성한 것은 반드시 소멸하고 마는 자연의 원리를 깨닫게 된 화자의 상실감이라 할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1, 2연에서 ‘~가(이) 온통 ~ 때 그곳을 ~ 면서 나는 ~었다’는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과거에는 대상의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② ‘골짜기(1연)’→‘길(2연)’→‘대추나무(3연)’→‘나뭇잎 하나(3연)’로 대상이 바뀌면서,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화자가 대상과의 거리를 점점 좁히면서 대상에 가까워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라는 부사는 화자의 인식의 순간을 강조하는 부사로서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났다(생성)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지는(소멸) 나뭇잎의 변화 과정을 바라보면서 화자는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10. 비판적 사고(다른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A]에서 ‘조각달’이나 ‘잘새’는 ‘오동’, ‘제비’, ‘나비’와 마찬가지로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헤어진 임과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므로,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답] ④

[수능] 15분 모의고사 5회 정답 및 해설

(10수능)

문법

1. ㉓ 2. ㉓

11. 어휘·어법 (어휘의 의미 구별)

정답해설 : ㄱ~ㄴ에 쓰인 ‘들다’의 의미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ㄱ(‘감기가 들다’)의 ‘들다’ : 몸에 병이나 증상이 생기다.
- ㄴ(‘가방을 들다’)의 ‘들다’ : 손에 가지다
- ㄷ(‘단풍이 들다’)의 ‘들다’ : 물감, 색깔, 물기, 소금기가 스미거나 배다.
- ㄹ(‘고개를 들다’)의 ‘들다’ :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다.
- ㄹ(‘반기를 들다’)의 ‘들다’ : 뜻을 밖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다
- ㅂ(‘보험을 들다’)의 ‘들다’ : 적금이나 보험 따위의 거래를 시작하다.

위에 확인된 의미를 유사성의 기준으로 분류를 해 본다면, ㄱ, ㄷ, ㅂ의 ‘들다’는 ‘생기다’, ‘들어오다’의 의미로 묶이며, ㄴ, ㄹ, ㄹ의 ‘들다’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다’의 의미 요소로 묶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㉓

12. 어휘·어법 (한글 맞춤법의 사례 분석)

정답해설 : ‘깍뚜기’가 아니라 ‘깍두기’로 적는 것은 <보기> 제5항의 ㉔에 따른 것이다. ‘깍두기’는 ㄱ 받침 뒤에서 [뚜]로 된소리가 나고 있는데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겹쳐서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 것이다. ㉔의 ‘만사위’의 경우는 ‘만’과 ‘사위’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그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므로, ‘깍두기’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답] ㉓

독서

3. ㉓ 4. ㉓ 5. ㉓ 6. ㉓

[3-6] 과학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지문해설 : 이 글에서 글쓴이는 율리우스력과 대비하여 그레고리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레고리력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특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레고리력의 제정은 제정 당시로서는 역법 개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역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글쓴이는 그레고리력이 정확성을 기한 천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상 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 오늘날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음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주제] 그레고리력의 제정 경위와 특성

13.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일치·불일치 파악)

정답해설 :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라는 구절에 주목하면 릴리우스는 교회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하였음을, 즉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았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① 교황청은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인 1582년 10월 15일이 되게 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여 한번에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사이의 10일의 오차를 수정하였다. ② 부활절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못함에 따라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함으로써 인해 그레고리력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릴리우스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었고,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고자 하였다. ④ 릴리우스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었다. 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제정되었다.

14. 추론적 사고(적절한 반응 추리)

정답해설 : 태양력, 즉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마련한 릴리우스는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인 항성년과,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인 회귀년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좀 더 정확한 역법을 만들려고 했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①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는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했으며, 음력에서는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②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에서는 태양의 운동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하고자 했고, 음력은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④ 그레고리력의 1년은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365일 5시간 49분 16초)을 채택한 것인데, 이는 보름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삼은 음력의 열두 달(354일)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1년이 354일인 평년에 한 달을 추가한 것이고 율리우스력의 윤년은 366일이다.

15. 사실적 사고(정보 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㉓은 ㉔보다 후대에 나타났는데,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한 것이며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① ㉓에서는 4의 배수인 해가 윤년이되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이고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이 되므로 1700년은 평년이 되고, ㉔에서는 4년마다 윤년이 돌아오

기에 1700년은 윤년이 된다. ㉓ ㉔에서는 4의 배수인 해가 윤년이되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이 되므로 4의 배수인 해는 윤년이 되는 ㉔보다 윤년이 자주 돌아온다고 말할 수 없다. ㉕ ㉖은 ㉔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㉗ ㉘이 ㉔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으며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16. 창의적 사고(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식당 중심은 태양에 대응하고, 그 중심을 기준으로 도는 철수는 지구에 대응한다. 철수가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에서 출발하여 다시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항성년에 대응한다.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는 항성에 대응하는데, 태양과 지구와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 항성년이기 때문이다. 또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에서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이 회귀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철수가 원래의 식탁에서 출발하여 다시 그 식탁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에 대응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②③④ ㉗가 지구, ㉘가 회귀년, ㉕가 항성년에 대응한다는 사실에 위배된다.

문 학

7. ㉔ 8. ㉔ 9. ㉔ 10. ㉔

[7-10] 현대시

(가) 윤동주, '자화상'

작품해설 : 자아를 성찰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우물'은 거울처럼 자기를 바라보는 성찰의 매개체이다. 그 속에 비친 자연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화자 자신은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화자는 자기 모습을 미워도 하고 가엾게 여기기도 하며 그리워하기도 한다. 자신에 대한 애증, 자기 연민이 교차하는 것이다. 미운 것은 식민지 공간에서 자신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기 때문이고, 가엾어지는 것은 자신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연민이며, 그리워지는 것은 순수하게 살던 옛날의 자기 모습을 떠올려서이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갈등은 마지막 연에서 우물 속의 아름다운 배경을 묘사하고 그곳에 '사나이'가 '추억처럼' 있다고 하여 극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제] 자아 성찰과 자기에 대한 애증

(나)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작품해설 : 선제리 아낙네들이 군산 목은 장에서 채소를 팔고 돌아오는 밤길의 정경을 통해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의 좋게 살아가는 민중의 삶을 그리고 있다. 시인은 '한밤중' 같은 생활을 비판하기보다는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의 좋은 한세상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한다. 그것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의 좋게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

(다) 김명인, '그 나무'

작품해설 : 늦된 '그 나무'라는 시적 대상을 통해 부족하고 소외된 것에 대한 연민과 기대, 나아가 자아 성찰과 앞으로의 기대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화자의 시선은 만발한 벚꽃이 아니라 병들어 늦된 '그 나무'에 꽂혀 있다. 활짝 꽃을 피워야 할 시기에 주목받지 못할 외진 곳에서 아직도 '명울'만 달고 있는 '그 나무'를 화자는 어딘가 안쓰러워 발길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본다. 모두가 풍성하게 꽃 피우는 중에도 어느 곳에선가 모자라고 뒤쳐진 삶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 대상에게도 마음을 써주는 화자의 마음이 따스하다. 그런 따스로운 시선으로 화자는 '그 나무'도 다른 나무처럼 꽃잎을 피우고 푸릇한 잎을 달고 여름 지나 가을에는 비록 풍성하지는 못해도 '가난한 소지'처럼 단풍으로 물들기를 기대한다. 소외된 것에 대해 갖는 애뜻한 연민이 마음의 공명을 울린다. 그런데 이 시에서 화자는 나무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늦깎이 깨달음'을 얻는 중이다. 단지 사물에 대한 연민에 머물지 않고 늦된 '그 나무'를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여 대상의 자기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나무'의 발견이 삶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제] 늦된 것에서 느끼는 연민과 자아 성찰과 기대

17.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그 사나이'(화자 자신)가 가엾어지고 자기 연민을 보이고 있고, (나)에서는 요기도 못해 배고픈 아낙네들을 딱하게 여겨 '빈 광주리야 ~ 오죽 가벼울까'라고 연민을 드러냈으며, (다)에서 '늦된 그 나무'를 어딘가 안쓰러워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정답] ㉔

18. 비판적 사고(작품 이해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추억처럼'이란 말은 동경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6연에서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연에서 추억과도 같은 과거의 자기를 발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 자아의 미운 모습과는 다른, 과거 속에서의 순수한 자아를 보는 것이다. 과거의 순수한 자아는 곧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6연을 자신에 대한 화자의 존재 탐구가 끝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보다는 우물 속에 투영된 자신을 미워하고 가엾어하며 그리워해 온 이제까지의 내적 갈등이 6연에 이르러 우물이라는 모태와도 같은 공간 속에서 과거의 이상적 자아를 발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극복되고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외판',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는 1

연에 나타나 있는 화자의 행위가 우물이라는 공간에 화자 자신의 내적 모습을 투영해 보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② 2연에서 우물에 비친 자연은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세계를 상징한다. ③ 3~5연에 나타나 있는 ‘미워져 돌아갑니다 → 가엾어집니다 → 미워져 돌아갑니다 → 그리워집니다’라는 심경의 변화는 모두 화자 자신에 대한 반응이므로 자아 성찰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 추론적 사고(작품 간의 표현 특징 비교)

정답해설 : [A]에서는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와 아낙네들의 말소리를 ‘짖어댄다’의 반복과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의 반복으로 병치해 놓음으로써 운율감이 조성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B]에서는 그런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②

20. 추론적 사고(시어 및 시구에 대한 해석)

정답해설 : ‘산에서 내려 ~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부분은 화자가 ‘그 나무’를 정서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난만한 봄길’은 화자 자신이 겪었던 젊은 시절의 혼돈이나 방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그 나무’도 자신과 같이 미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늦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기에 늦된 ‘그 나무’와 함께 ‘늦깎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곁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시오릿길’은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말이다. 이 공간은 선제리 아낙네들이 고단한 생활을 이어가는 삶의 현장이다. ② 화자는 선제리 아낙네들이 서로 의종게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끼리끼리 살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러한 모습에 대해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라고 공감을 표하고 있다. ③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느’이라고 수식이 되어 있으므로 ㉠의 주체는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그 나무’이다. 따라서 ㉠은 ‘그 나무’가 꽃을 성화(성스러운 불)처럼 피우면 좋겠다는 화자의 기대를 담은 시구로 볼 수 있다. ⑤ ‘늦깎이 깨달음’이라는 앞서의 시구와 관련하여 ‘소신공양’, ‘소지’라는 종교적 색채를 띤 시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불타는 소신공양’은 만발한 벚꽃들의 가을 모습이고, ‘가난한 소지’는 자신과 동일시되는 늦된 ‘그 나무’의 가을 모습이다. ‘그 나무’와 자신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수능] 15분 모의고사 6회 정답 및 해설

(12 수능)

문법

1. ④ 2. ②

21. 어휘·어법 (언어의 특징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무거운 침묵’의 특징으로 고정된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고정된 형식이라는 것은 ‘무거운’과 ‘침묵’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 다른 말로 대체가 안 되며 앞뒤 순서를 바꾸면 부자연스럽거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 주는 예는 ④의 ‘뜨거운 눈물’과 ‘새파란 젊음’이다. ‘뜨거운’ 대신에 ‘차가운’을 쓰면 ‘차가운 눈물’이 되는데 이는 사용되는 말이 아니다. ‘차가운 목소리’는 사용하지만 ‘차가운 눈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물’도 다른 말로 대체가 되지 않는다. ‘새파란’도 ‘파란’ 등으로 대체되지 않으며 ‘젊음’도 ‘어린’ 등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따라서 ‘뜨거운 눈물’과 ‘새파란 젊음’이 ‘무거운 침묵’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말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꽃다운 나이’에서 ‘나이’는 ‘외모’ 등으로 대체된다. ‘높다란 나무’에서 ‘나무’도 ‘건물’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② ‘진정한 친구’에서 ‘진정한’은 ‘착한’ 등으로 대체된다. ‘친구’도 ‘우정’ 등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씻누런 들판’에서 ‘씻누런’도 ‘파란’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③ ‘차가운 공기’에서 ‘차가운’ 대신에 ‘뜨거운’을 쓸 수도 있고 ‘공기’ 대신에 ‘물’을 쓸 수도 있다. ‘막다른 골목’의 ‘막다른’도 ‘예쁜’ 등으로 대체된다. ⑤ ‘팽팽한 대결’에서 ‘대결’은 ‘싸움’, ‘관계’ 등으로 대체된다. ‘가벼운 발걸음’에서도 ‘가벼운’은 ‘무거운’으로 ‘발걸음’은 ‘목소리’ 등으로 대체된다.

22. 어휘·어법 (연결어미의 쓰임 이해)

정답해설 : ㄱ을 보면 ‘-(으)면서’는 평서문과 어울리고 있으며, ㄴ을 보면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등과 어울리고 있다. 따라서 ‘-(으)면서’가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ㄱ의 ‘쳤으면서’와 ‘ㄴ’의 ‘나섰자’에는 공통적으로 ‘-었-’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가 사용되면 ‘-(으)면서’나 ‘-자’를 사용할 수가 없다. ③ ㄴ은 ‘동수가’와 ‘비가’로 앞뒤 부분의 주어와 달라 문장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ㄷ을 보면 앞뒤 부분의 주어와 같아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다. ④ ㄷ을 보면 ‘-(으)면서’는 ‘상냥하다’는 형용사와 어울리고 있다. 이 경우 상냥하면서 동시에 차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상냥하고 차분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이 된다. ⑤ ㄷ의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는 ‘-(으)면서’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독서

3. ④ 4. ⑤ 5. ① 6. ④

[3-6] 인문,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비트겐슈타인이 “논리 철학 논고”에서 주장한 ‘그림 이론’을 소개하는 글이다. 그는 이 이론을 통해 언어는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 말하고, 언어에서의 명제와 세계에서의 사태가 각각 대응한다고 말한다. 이때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닌,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다. 따라서 명제 역시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며,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은 실제 일어난 것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결국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은 의미 없는 명제라고 말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형이상학적 철학에 대해 비판한다.

[주제] 그림 이론을 통한 비트겐슈타인의 기존 철학에 대한 비판

3.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비트겐슈타인은 ‘그림 이론’을 통해 세계와 언어의 관계를 규명한다. 세계에 속하는 사태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 명제라는 것이다. 이때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랬을 경우에 그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④의 경우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 모두를 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러한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한 것이지 모두가 참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마지막을 보면,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는 진술이 있다. ②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가 논리실증주의와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1문단에 진술되어 있으며, 2문단을 보면 이 책에서 그가 주장한 것이 ‘그림 이론’임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명제와 대응하는 세계의 요소가 ‘사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다. ⑤ 4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등과 관련된 논의는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에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4.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 없는 명제’는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을 가리킨다. ⑤의 명제는 경험적 세계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바람직한 삶’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언급한 것으로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경험적 세계에 대한 언급으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② 과학의 법칙으로 경험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태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③ 실존했던 인물의

탄생 시기와 지역을 언급한 것으로, 실제 일어난 일이다. ④ '우리 반 학생'이라는 실재하는 대상에 대해 '헌혈'이라는 구체적 사태를 언급한 것이다.

5. 사실적 사고(의미 관계의 파악)

정답해설 : ㉠과 ㉡은 그림 이론을 설명하는 것으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때 '모형'은 '언어'로, 실제 사건은 '세계'로 바꿀 수가 있다. 또한 언어는 '명제'로 구체화되며, 세계는 '사태'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의 연결도 ㉠과 ㉡의 관계에 해당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의 '논리적 그림'은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러한 명제 중에서 '의미 있는 명제'와 '의미 없는 명제'를 비트겐슈타인은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의 관계는 상하의 논리 관계에 속한 것으로, ㉠과 ㉡관계와는 다르다. ㉠의 형이상학적 주체는 경험할 수 없는,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기에 경험적 세계와는 대립된 것이다.

6. 비판적 사고(핵심 논리에 따른 비판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는 비트겐슈타인의 말로, 그는 "논리 철학 논고"를 이해한 사람은 그 내용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문을 보면, 그는 의미 있는 명제는 실재하는, 경험 가능한 사태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두 내용을 연결시키면, 결국 "논리 철학 논고"는 경험 가능한 사태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의 책은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를 넘어서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비트겐슈타인이 내세웠던 철학의 과제는 언어에 대한 분석이므로, "논리 철학 논고"가 이를 넘어선 것은 아니다. ②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를 다룬 이 책은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은 아니다. 또한 만약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언급이라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는 사태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일어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인 사태이다. 이때의 사태를 언급한 명제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④의 답지는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라고 진술하고 있어 앞뒤의 진술 내용이 모순이 된다. ⑤ ㉠은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문 학

7. ③ 8. ⑤ 9. ② 10. ①

[7-10] 고전소설 - 박지원, '호질'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당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인물로 추앙 받고 있는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이면을 폭로함으로써 당대 사회의 위선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학자와 열녀로 이름이 있는 이들이 보이는 가식적인 행태를 통해 인간 사회가 지닌 문제점과 지배층의 위선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데, 범이라는 존재를 내세움으로써 작가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는 특징을 지닌다.

[주제] : 선비의 위선적 의식과 인간 사회의 부도덕에 대한 비판

7. 추론적 사고(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다)는 북곽 선생을 여우가 둔갑한 존재로 여기고 그 북곽 선생(여우)를 잡아 죽이려는 장면인데 이로 인해 (라)에서 다섯 아들이 북곽 선생을 붙잡으려고 방을 급습하고 간신히 도망치는 북곽 선생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③의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가)와 (나)에는 모두 인물 간의 대립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나)와 (다)는 모두 대화 중심으로 장면이 전개되고 있다. ④ (라)와 (마) 모두 갈등이 나타나 있을 뿐 '갈등 해결'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마)와 (가)는 구조면에서 유사한 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

8. 비판적 사고(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뿐만 아니라 이 글 전체에는 북곽 선생의 '성찰'은 나타나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의 ㉠(밤)과 ②의 ㉡(방)은 북곽 선생과 동리자가 명성과는 달리 욕망을 드러내는 시간이므로 두 인물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 '북곽 선생의 욕망이 표출되는 시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구덩이)는 옷을 더럽힌다는 의미와 북곽선생이 불순하게 되었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아침)은 농부에게 허위적 모습을 보이는 북곽 선생의 태도를 드러내고 이는 사람들이나 호랑이에게 보이는 위선적 태도와 동일선상에 있는 모습이므로 '재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9. 추론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는 위선적이고 허위적인 북곽 선생이 그려져 있을 뿐, 부를 이용하여 벼슬을 얻었다는 정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여우가 사람 시늉을 한다는 것은 북곽 선생이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그림자를 감추다'는 것은 허위적 모습과 아부하는 태도(치부)를 감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애교를 부린다는

것을 북곽 선생이 호랑이에게 비굴하게 구는 태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⑤ 여우는 북곽 선생을 지칭하는 말이고 이를 잡아 죽이자는 말은 북곽 선생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 한다는 것으로 북곽 선생이 봉변을 당할 것임을 알 수 있다.

10. 사실적 사고(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파악하기)

정답해설 : 자화자찬은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스스로 자랑함'을 나타내는 말인데 (라)~(바)에는 그러한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 파악하기] ② '감언이설'은 '남의 비위에 맞도록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꺾는 말'인데 이는 (마)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③ '임기응변'은 '그때그때 처한 형편에 맞추어 일을 알맞게 처리함'을 뜻하는 말인데 이러한 태도는 (라), (마), (바)에 두루 나타나 있다. ④ '대경실색'은 '크게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변함'을 뜻하는 말인데 이러한 태도는 다섯 아들이 덮치는 장면과 호랑이를 만나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⑤ 전전공공은 '매우 두려워 조심함'을 뜻하는 말인데, 이러한 태도는 (마)와 (바)에서 호랑이를 대하는 북곽 선생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